

# 미니멀리즘에 대한 연구 디터람스의 사례 중심으로

---

G2011011 김행운

Less is More

간결한 것이 더 낫다 \_Mies van der Rohe



"Less is More."

미스 반 데 로에 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한 말 이다.

'간결한 것이 더 낫다'

우리는 수많은 디자인을 보고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화려하고 디테일이 많은 디자인부터 심플하고 꼭 필요한  
요소로만 디자인이 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때로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군더더기가 많아 보이는 디자인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심플함과 미니멀함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데 이미 몇 십 년 전에 심플함과 미니멀함을 추구한  
디자이너가 있었으니, 바로 "디터람스 Dieter Rams" 이다.  
디터람스를 알아보기전에 먼저 간단한 미니멀리즘에 대해 알아보자.

미니멀리즘은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시각 예술 분야에서 출현하여 음악, 건축, 패션, 철학 등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어에서 '최소한도의, 최소의, 극미의'라는 뜻의 '미니멀 (minimal)'과 '주의'라는 뜻의 '이즘(ism)'을 결합한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미니멀리즘은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근본 즉 본질만을 표현했을 때, 현실과 작품과의 괴리가 최소화되어 진정한 리얼리티가 달성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회화와 조각 등 시각 예술 분야에서는 대상의 본질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최소한의 색상을 사용해 기하학적인 뼈대만을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의 미술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미술이론가 이기도한 도널드 주드(Donald Judd)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음악에서의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인기를 끌었던 필립 글래스(Philip Glass)의 단조롭고 반복적인 합주곡처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박자에 반복과 조화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도 소재와 구조를 단순화하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루드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리처드 풀러(Richard Buckminster Fuller)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미니멀리즘은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장식적인 디자인을 가능한 제거한 심플한 디자인 이나 직선적인 실루엣의 선정적인 옷, 또는 최소한의 옷으로 훌륭한 옷차림을 연출하는 방법 등이 모두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미니멀리즘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만을 주장하는 금욕주의 철학, 복잡한 의식을 없애고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종교적인 흐름 등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대를 넘어도 변하지 않고, 세련된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는  
브라운의 제품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Less but Better)' 라는 모토로  
오디오 시스템, 주방가구, 면도기 등 수많은 제품을 통해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실용성과 견고함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애플의 수석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가 참조했을  
만큼산업디자인계의 거장이 있었으니!

바로 "디터람스" 이다.

"디터람스"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십대  
초반부터 목수 기능장 이었던 할아버지의 작업장을 자주  
찾아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목공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꾸밈없는 단순한 것을 선호했다고 한다.





1961년에 Braun 이라는 전자 제품 회사에서 디자인 팀장이 되었으며, 1995년까지 그 자리를 유지한다. 그 자신만의 디자인에 관한 기조는 이러하다. " Less, but better ". 더 적게, 그러나 더 낮게.

Rams와 그의 팀원들은 Braun에서 수많은 기억에 남을 만한 제품들을 디자인해냈는데, SK-4 record player와 'D-' series 등이 유명하다. 또한, Vitsoe에서의 606 Universal Shelving System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가 개발한 커피 메이커, 계산기, 라디오, 오디오/영상 도구, 사무용품 등은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미술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New York의 MoMA 미술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그는 자신의 주요 작품에 대한 회고전을 열며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는 산업 디자인의 전설로 불리우고 있으며, 디자인에 있어서의 미니멀리즘을 지향해 왔다.

처음 직장이었던 Braun 사에 입사하여 만들어 낸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와 회색 바디의 오디오는 당시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다. 오디오는 체리목을 사용해 왔었던 기존의 통념을 깨고, LP가 돌아가는 과정을 디자인적 요소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사용자 중심과 심플한 디자인을 기조로 삼아 만든 그의 디자인들은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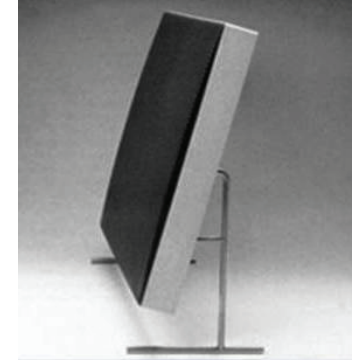


SK-4

그에게 제품은 장식품도 아니고 예술품도 아니었다.

그저 제품은 도구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는 "제품 디자인은 언제나 중립적이고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제품 자체보다 그 제품이 놓일 공간과 사용자가 다루는 것을 상상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지 않을까?

그의 미니멀리즘 성향은 애플에 의해서 재조명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플의 많은 디자인들이 디터람스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 중 디터람스의 포켓 라디오와 애플의 아이팟, 아이맥 시리즈 등애플의 수석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가 그의 디자인에 얼마나 심취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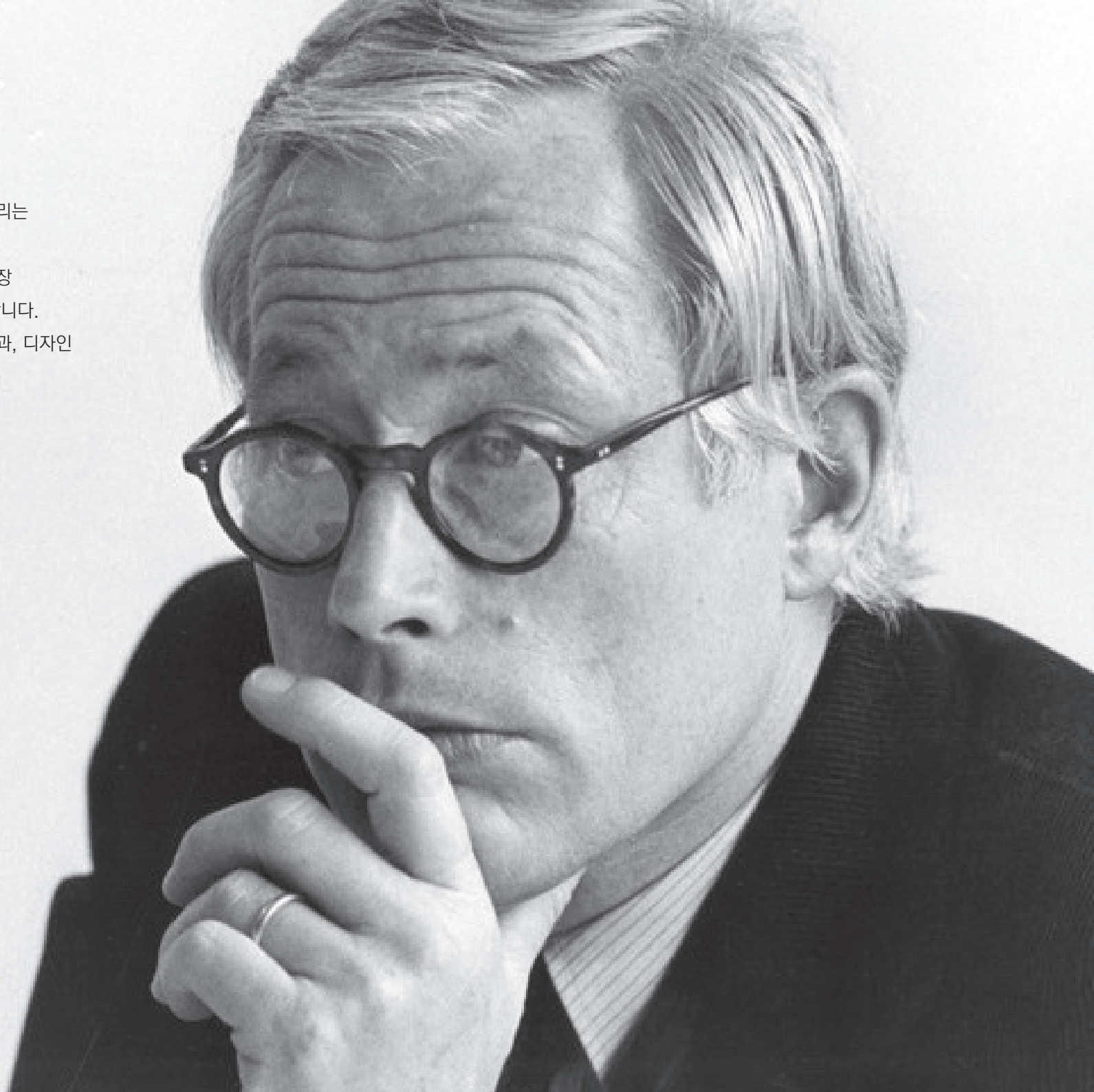


좋은 디자인은 제게 이러한 의미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소의 디자인을 하라.

우리가 디자인의 필수 요소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여분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해야 하며,  
편안할 뿐 아니라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응용력”입니다. 사용자의 집과, 디자인  
및 제작에 있어서의 순응력에 중점을 두는 거죠.

1976년 디터람스의 연설 중에서\_in NY



## 디터람스의 디자인 10계명

Good design is innovative. -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Good design make a product useful. -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유용하게 한다.

Good design is aesthetic. - 좋은 디자인은 아름답다.

Good design makes a product understandable. -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

Good design is honest. - 좋은 디자인은 정직하다.

Good design is unobtrusive. - 좋은 디자인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는다.

Good design is long-lasting. - 좋은 디자인은 오래 지속된다.

Good design is thorough down to the last detail. -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하다.

Good design is environmentally friendly. - 좋은 디자인은 환경 친화적이다.

Good design is as little design as possible. - 좋은 디자인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디자인한다.



그의 디자인 10계명이 잘 드러나는 것은 역시 "브라운 Braun"사에 있을 때, 디자인 한 가전제품들이라고 생각한다. 새하얀 생활 가전제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애플의 심플함과 시원시원한 디자인들이 떠오른다.

독일의 유명한 가전업체 "브라운" 에서 "디터람스" 의 디자인은 오늘날의 애플 디자인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브라운에 입사 한 후 전무이사의 자리까지 오르기 쉽지 않음에도 젊은 나이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디터람스"의 디자인이 혁신적 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Radio clock

1978/Design: Dieter Rams and Dietrich Lubs



TS 45는 소위 '백설 공주의 관' 이라 불린 SK 4 (1956)가 논리적으로 진보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선명한 이중 스케일 주위에 L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조작 버튼을 배열하여 많은 작동을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명료함을 유지하고 있다. 기능에 걸맞은 디자인의 또 다른 예는 누름 버튼이 오목한 표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녹음 기능을 위해서는 원뿔 형태의 회전식 버튼이 사용되었는데 큰 것은 주파대, 작은 것은 볼륨과 음색, 그리고 밸런스를 위해 사용된다. 중앙의 빗장 모양을 한 회전 버튼은 그 유기적인 형태로 인해 대위법적 위치를



TS 45 / TG 60 / L 450

1964 / 1965 / 1965 Design: Dieter Rams



디터 램스가 브라운사를 위해 디자인을 시작한 시기와 자신의 첫 가구 제품을 디자인 한 시기는 같다. 이미 1957년에 그의 첫 모듈 가구인 RZ 57이 소개되었고 2년 후에 램스의 디자인 제품을 전적으로 생산하는 가구회사 비초에 & 잡프에서 그의 가구들이 제작되었다. 그의 시스템 가구 디자인은 1950년대에 독일에서 널리 보급된 장식적인 스타일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세계대전 이전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1960년에 확장과 재배열이 가능하며 필요하면 제거할 수도 있는 새로운 착안의 선반 시스템이 선을 보였다. 처음에 RZ 60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1970년에 606 만능선반시스템으로 개칭되었고 현재까지도 성공적인 아이템이다. 이 시스템은 절제된 단순함에다 개별적인 구성물이 사용자의 변화하는 삶에 걸맞게 유동적으로 조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previously RZ 60)

1960 / Design: Dieter Rams



이 헤어드라이어는 원색이 유행이었을 때 고안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표준 모델로 남아 있다. 선이 완곡하게 마무리된 직육면체의 드라이어는 디터 램스와 브라운사의 디자인 팀이 15년간 이룩한 디자인 전통을 인용하고 있다. 접선형 팬을 장착하여 크기를 축소함으로써 특히 여행용으로 이상적이다. 평행선으로 길게 뚫어진 통풍구는 1956년에 제작된 SK 4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섬세한 형식미를 보여준다. 중간에 있는 두 줄의 통풍구는 중간에 놓인 스위치에 반응하는 듯, 스위치의 하얀 점에 맞서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듯하다. 찬 공기가 들어와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을 시각화하는 이런 작지만 장난스러운 고안은 스타일의 엄격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을 준다.



HLD 4

1970 / Design:Dieter Rams



오늘날 이동하며 음악을 듣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혹은 길을 걸으며 사람들이 이어폰을 착용하고 mp3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또한 일반적이다. 이제는 아주 흔해진 소형 스테레오 오디오 시스템의 모델이 된 것은 1979년에 출시된 소니사의 워크맨이 아니라 디터 램스가 그보다도 20년 전에 브라운사에서 제작한 오디오 제품이다. 램스는 그 당시 새로 개발한 포켓 라디오 T4와 소형 레코드 플레이어 P 1을 조합했는데, 그것은 마치 그 후에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이 살루트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는 것과 같았다. 작동을 위해서는 스프링 장치를 이용해 바늘이 레코드판에 접촉하게 했고 켜지 않을 때는 움직이는 작은 칸막이 뒤로 바늘이 사라지게 했다.



(pocket transistor radio T 3/31) T 4 or T 41 and record player P 1  
1959 / Design:Dieter Rams



60년대 중반만 해도 흡연은 아직 문화적으로 세련된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사회적 소통을 장려한다고  
간주되었다. 브라운 디자인 부서는 다른 제품들에게  
쏟아 부운 열정과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이 새로운  
과제에 착수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서도 브라운사  
고유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 이전까지  
보석 장식을 해서 뽐내는 라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기능적이면서 고급스러움을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다. 첫 모델 TFG 1은  
라인홀트 바이스(Reinhold Weiss)에 의해  
고안되었다. 디터 램스는 기술부서에 새로운 점화  
기술을 개발하도록 종용했다. 그리고 2년 후 자신이  
고안한 첫 라이터에서 기하학의 기본 형태를 이용했다.  
기다란 원통형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오직  
원형에만 집중했다. 결과는 사용이 가능한 '테이블  
조각품' 이었고 이것은 당시의 미니멀리즘 예술  
운동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1960년대 초 서독은 나치즘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고립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라디오가 개발되었고 이 라디오는 디터 램스 디자인의 한 전형이 되었다. 이 라디오는 세계주의적인 태도와 이동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었고 이 두 가지 특징은 오늘날 더욱 중요하게 거론된다.

사방이 막힌 직육면체 윗부분에 있는 뚜껑을 열면 스케일, 조율 버튼, 연결 소켓을 포함한 복잡한 내부 장치가 보이고 이 다양성이 매끄럽고 단일한 형태를 한 외면과 대조를 이룬다. 장파와 중파 수신, 그리고 VHF 수신 뿐 아니라 8개의 단파 수신 체제를 통해 우리는 여기에서 넓고 큰 세계로의 통함을 예감한다.



T1000

Design:Dieter Rams

여기까지 디터람스가 브라운에서 디자인한 제품들 이었다.

디터람스의 기본 원칙은 '간단함으로 회귀하는 것' 이 었다.  
'간단하다' 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잘 어울리게 된다는  
뜻으로 좋은 디자인은 눈에 띄지 않다가 필요할 때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 라고 강조한 것이다.